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원*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공항과는 1시간 남짓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쇼핑몰과 10분정도 떨어져 있어 교통수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만족스러웠다.</p> <p>또한 쇼핑몰과 가까워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p> <p>파견대학에는 수영장, 농구장, 편의점 등 부대시설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만족감이 들었으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규모로 생각된다.</p> <p>수업을 하는 강의실과 생활하는 방이 한건물에 있어서 등하교 시에 불편함이 없었고 매 쉬는 시간마다 복도에서 선생님들과 마주치면서 영어를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내용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스피킹 위주로 짜여진 수업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한국에서 실행하는 방식과는 달라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3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을 나누어 분반수업을 하는 것이 각 반의 단합력을 키우고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효율적이었다. 강사분들은 대체적으로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와 주고 열정을 다해 우리를 가르쳐주시려고했다. 수업시간 외에도 점심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친해졌고 영어로 말하는 시간이 길어져 영어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과제는 기분좋은 마음으로 매번 해갔으며 과제의 양에도 크게 불만이 없었다.</p> <p>수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자신감하나면 충분했다. 영어를 입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안에서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밖으로 뱉으려는 자신감하나면 수업의 준비는 끝난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요트타기는 수업 외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 원래 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최적의 활동이었으며 요트의 규모나 외관도 좋았다.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수영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다. 고아원에서의 활동은 내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처음경험해본 일이고 처음가보는 장소라 내게 익숙치 않았지만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느낄수 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었고 준비물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하나면 충분했다.</p> <p>마지막으로 UP마닐라 투어였다. 현지 학생들과 게임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필리핀은 우기라 비가 많이 와 우산을 들고 다녀야 한다. 비오는 시간이긴 편은 아니지만 한번 오게 되면 양이 많아 주의 해야 한다. 또한 곤충이 많아 상비약을 갖고 가야하며 습한 날씨가 계속된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각종 매체를 통해 필리핀 소식을 듣던 바와 달리 안전하였고 치안이나 안전상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수빅은 더욱 안전하였으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기숙사는 많은 부대시설이 있어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에 충분하였고 방은 매일 직원분들이 청소와 빨래를 해주셔서 편안했다. 통금시간은 평일 10시 주말 12시로 사고가 나지 않게 시간을 엄수하여 들어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큰 불만은 없었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외부식당에서 저녁을 주로 먹고 점심은 학교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다. 점심메뉴는 매번 한식이어서 음식에 대한 적응은 크게 어렵지 않았으며 조리해주시는 음식은 매우 맛이 있었다. 외부식당을 이용하는데에는 학교내에 있는 식당보다는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다. 외부음식이다보니 조금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 했던 것 같다.</p>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FB와 택시를 이용해 학교와 외부를 오고갔다. 한국보다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여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었으며 기사분들도 친절하였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100,000	저녁 식사
기념품	30,000	드라이망고, 과자
오락비	100,000	음주, 마사지
고아원	6,000	기부금
공항세	13,000	공항세
합계	24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나라의 기후를 알고 상비약을 챙겨가야 합니다. 속이 안좋아 고생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옷은 여러 벌 챙겨 가야합니다. 기숙사 내에서 먹는 음식은 괜찮지만 외부에서 음식을 먹게되면 음식 뿐만 아니라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합니다.

한국에서는 물을 부담없이 먹어도 상관없으나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물을 마실 때 신중히 선택하여 마셔야합니다.

과일 또한 오래 동안 밖에 방치해놓으면 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온도도 높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필리핀은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는편이라 우산이나 우비를 꼭 챙겨가면 좋습니다.

비오는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한번 올 때 많은 양이 내리는 점을 알고 가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꼈다. 우선,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알게되어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평소에 한국에서는 영어를 말하는 기회가 흔치않았고 말하기 수업이 많지 않아 약간 생소하기도 했지만 하루이틀 계속 쓰다보니 영어가 편해지고 자신감도 붙어 정말 좋았다.

공부 외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 그런 면에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필리핀에는 망고가 주요과일이기 때문에 망고를 좋아하는 나에게 더욱 좋았다.

기숙사 내에 수영장도 있어 물을 좋아하는 나에게 안성맞춤이었으며 선생님들이 친근하게 학생들을 대하여 적응하는데도 큰 문제없이 적응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리핀의 주요음식 파인애플과 밥을 결합한 퓨전음식



안바야 코브 해변가에서 축구를 하다 촬영한사진



테라스 호텔에서 같은 조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수영하며 촬영한 사진



졸업식날 TOP5와 선생님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올롱가포 시내에서 학교사람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요트위에서 촬영한 나의 뒷모습